

TIMOR - LESTE

라온아띠 17기
하무뚝 딜리 9월 이야기



Domingu	Segunda	Tersa	Kuarta	Kinta	Sesta	Sabadu
					1	2
3	4	5	6	7 인천->덴파사르 (발리)	8 • 덴파사르->딜리 • 강호 간사님과 피스카페 간사님들과의 만남	9 • 크리스토투레이 방문 • 피스 카페 방문 • 첫 장비 • 휴대폰 개통
10 • 팀 규칙 및 17기 실천강령 정하기	11 • YMCA센터 첫 방문 • 생필품 구매 • 동티모르 역사 공부	12 • 떼뚱어 수업	13 • 존 파올로 동상, 따시모루 구경	14 • 티모르 축구 국 가대표 수비수 아파이와의 첫 만남♥	15 • 영화 발리보 감상	16 • 팀원들과 티모르 플라자 첫 나들이
17 • 발코니 대청소	18 • 센터에서 축구 with 아파이 • 전체 일정 OT	19 • 창고 정리 도움 • 주간 일정 브리핑	20 • 피스카페 value chain 알아가기	21 • 자유시간!	22 • 독립기념관, 산 타크루즈 묘지, 딜리 전통 재래 시장 방문	23 • 영화 '맨발의 꿈' 감상 • 델타 지역 탐방
24 • YMCA유스들과 크리스토투레이 함께 해수욕	25 • 피스 카페 일손 돕기	26 • 떼뚱어 단어정리	27 • YMCA 센터 벽화 작업	28	29 • 팀 역할 재검토 • 노트북 사용 재검토	30 • 빈곤 퇴치 캠페인 의견 나눔

1 동티모르 도착

2 동티모르 생활기

3 YMCA 센터 활동

4 피쓰커피 활동

5 동티모르 역사 알아보기

6 9월 이야기 개인 소감

들어가기 전, 팀원소개!

RaonAtti



이름: Beti (정예원)
아이들과 우리집 개 꼬베를 싫어한다면서 그들과 제일 잘 놀고있음
휴대용 선풍기를 애용
아무 말 대잔치
현지 소통왕(아무 말로 ㅎㅎ)
시원한 곳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책 읽는게 너무 좋아 ♡ (예원ㄷ)
이제 물과 전기가 끊기는 건 놀랍지도 않아~♪
제일 잘 하는 말: 크리피해 ㅠㅠ & 마음 아파 ㅠㅠ

이름: Lopez(윤상)
헬스 트레이너 담당
과자를 짱 잘 골라><
축구 유니폼 수집가
딜리 팀의 DJ
현지 적응왕
체력 짱, 모험심 짱♪
카드 마스터, 겜블러
인간 난로

제일 잘하는 말: 엇 예쁜데...?♡



들어가기 전, 팀원소개!

RaonAtti



이름: Fina(최윤영)
센터 아이들의 mom
비글미 ~♡

과자 lover (과자 짱 맛있어!)
원카드 증독자
제 2의 소통왕
최 포토그래퍼

밝은 에너지, 팀의 비타민 (자타칭 ㅎㅎ)
팀의 간호사, 일명 백의의 천사
가장 잘 하는 말: 심심해..재밌는 얘기 해죠...~

이름: Anis(정현재)
거의 현지 간사님
간헐적 다이어터
현지 간사님들의 한국어 선생님♡
나는 아이들이 어려워서 싫어..ㅠㅠ
의외로 캐릭터 잘 그림!
티모르에서도 그는 취준생
Fina의 mp3 애용가
더위를 잘 탐

가장 잘 하는 말: 푸마 시가루 하무뚝~(같이 담배피러 가자)



동티모르에 도착하다!



9월 8일 오후 1시 발리를 경유해 딜리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본 딜리의 바다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딜리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 얼굴이 후끈 달아 올랐어요.

또 한편으로는 공항을 보며
'이곳이 공항이 아닌 시골 버스정류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30일 비자를 받고 나서 어렵게 수화물 검사를
끝내고 드디어 간사님들과 만났답니다.



처음 피스 카페 가공장 겸 우리의 숙소에 도착하여 간단히 저희에 대해 소개 했습니다.

영어도 떼뚱어도 아닌 말로 서툴게 소개하였지만 간사님들은 웃으면서 저희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Beti: 딜리에 오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발리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해야 했어요. 12시 넘게 발리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눈만 붙이고 준비해서 공항으로 도착했습니다. 비자 문제때문에 카운터 직원들이 서약서를 쓰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괜히 불안하기도 했어요. 딜리행 비행기 창 밖을 생전 처음 보는 바다의 색깔이 가득 채우고 있었고, 나무가 거의 없는 벌거숭이 산이 공항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낯선 나라인 동티모르의 첫 인상은 역시 뜨거운 태양의 열기였습니다. 공항을 나서고 택시 호객이 난무하는 가운데 강호 간사님과 마웅 에두를 처음 만났습니다. 피스 커피 로고가 달린 트럭을 타고 영국식 교통 체계인 도로를 달리며 본 풍경 속에서 제대로 된 건물이 드물었고 많은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신호등이 없는 곳에도 알아서 잘 가는 게 신기했습니다. 첫날 물이 끊어지는 바람에 미리 받아둔 물항아리에서 샤워를 했는데 새삼 내가 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티모르에 지내면서 한국에서 내가 당연하게 누렸던 팔팔 나오는 물, 전기가 절대 당연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동티모르는 나에게 없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게 했습니다

Lopez: 인천에서부터 긴장을 하고 이동했던 탓일까. 대한항공에 목 베개를 두고 내렸고, 발리에서는 악력기를 반납했다. 소중한 물건을 하나 둘 보내면서 5개월의 동티모르 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잔뜩 긴장하고 도착한 딜리 공항에서는 Volunteer 스펠링 마저 잊어버릴 만큼 그리 온전한 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다. 공항 입구 수속 과정에서 직원분이 메모지에 'You Bonito'라고 적어 주셨는데, 이 마저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던 나는 당시 '너 바보야'라고 놀리는 줄 알고 정말 바보같이 의심을 했다. 속전속결 국내훈련과는 달리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던 동티모르의 생활이 이제 시작이다.

Anis : 비행기에서 내린 나를 처음 맞이해준 것은 따갑게 내려 쬐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였다. 막 시작 되던 가을의 선선한 바람을 즐기던 와중 새삼 새로운 여름을 맞이한단 사실에 살짝 현기증이 나는 듯 했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딜리공항을 둘러보았다. 군데군데 갈라진 바닥과 때묻은 벽, 그리고 우리집 화장실보다 썰렁한 화장실까지. 일국의 수도에 위치한 공항이라 하기엔 딜리 공항은 너무도 허름했다. 마치 시골의 시외 버스터미널을 연상케 하는 딜리 공항. 그런데 내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것일까, 어째 선지 그 풍경을 보니 가슴이 훈훈해 지고, 기분이 들뜬다.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동티모르의 YMCA간사님들과 만난 후, 숙소에 가기 위해 트럭에 올랐다. 트럭의 좌석이 부족했기에 군 제대 이후, 처음으로 트럭의 짐칸에 앉았다. 이윽고 달리기 시작하는 트럭. 탁 트인 짐칸에 앉아 후끈한 바람을 맞으며 딜리의 풍경을 바라보니 새삼 내가 낯선 땅에 왔다는 것이 느껴졌다. 한국에서 보기 드문 열대식물부터 시작해서 낯선 외양의 사람들과 건물들을 보니 그동안 꿈처럼 느껴졌던 지금의 순간이 새삼 현실이란 것을 자각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 그리고 나는 어떤 것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변하게 될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기보단 마치 일요일의 아침처럼 상쾌한 기분만 들었다.

Fina : 딜리행 비행기 안에서 본 티모르 바다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에메랄드 빛깔의 바다, 반사되어 반짝이며 출렁거리는 파도. 허나 풍요롭고 아름답던 바다와 딜리 공항의 첫인상은 '뭐지? 이게 공항이라고? 시골 버스정류장같은데?'였다. 이렇게 정류장인지 공항인지 애매한 곳에서 우리는 우연히 '라온아띠'를 아는 현지분들을 만났다. '너네 라온아띠 맞지? 나 라온아띠 알아!'라며 우릴 반겨주시던 분들을 보니 앞으로의 티모르 활동이 기대가 되었다. 동시에 라온아띠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내가 '라온아띠'로서 책임감을 가지며, 폐 끼치지 않고 잘 생활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딜리에 도착한날 바로 강호 간사님과 피쓰커피 간사님들을 뵈어 인사를 나누었는데, 다들 현지바보(?)인 우리를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아직까지도 서툴고, 모르는 것 많고, 부족하여 매번 실수하는 우리를 간사님들이 너그럽게 봐주시고 배려해주셔서 늘 감사하다.

동티모르 생활기



저희는 집에서 주로 밥을 해먹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 두 번은 장을 보러 가야한답니다.
처음엔 동티모르의 물가도 잘 모르고, 어떠한 상점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해서 많이 헤맸습니다ㅠㅠ
하지만 이젠 '감자는 여기가 싸지! 양파는 저기가 더 싸지!'는 알 정도가 되어 나름 알뜰하게 척척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티모르는 식자재가 부족하여 매번 같은 물건이 들어오지 않아 필요한 물건을 제때
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네요.



미끄롤레는 동티모르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작은 승합차를 개조한 미니버스입니다.
그 안에는 길게 놓여진 좌석과 손잡이,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강렬한 음악이 있습니다.
한 번 이용료는 25센트랍니다~
저희는 YMCA센터에 가거나 장을 보러 다니는 등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대중교통인 미끄롤레를 이용하고 있어요!
단!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딜리의 더운 날씨때문에 손빨래는 저희의 일상 중 중요한 시간이자 가장 힘든 시간이랍니다.
물이 자주 끓기는 바람에 하던 빨래를 중간에 멈춰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애써 널어 놓은 빨래를 같이 사는 개 꼬빠가 물어 뜯기도 했어요ㅜㅜ
하지만 딜리의 뜨거운 햇살 덕분에 빨래가 금방금방 마른답니다!
곧 우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빨래가 지금처럼 잘 마르는 날씨는 만나기 힘들 것 같네요...



식사 또한 저희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디서든지

1. 잘 먹어야 아프지 않고 건강하니까요
2. 저희가 먹는 밥이 저희 에너지의 근원이니까요
3. 맛있게 먹으면 행복하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저희는 집에서 만들어 먹지만 가끔씩 현지식으로 외식을 한답니다.



저희는 자유 시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취미로 저희의 옷을 물어 뜯는 커다란 개 꼬삐와 논답니다.

둘째, 저녁을 먹고 나서는 트레이너 로페즈의 지도 아래 운동을 매일매일 한답니다.

셋째,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 책장 가득히 쌓인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넷째, 같이 사는 간사님들과 함께 서툰 떼뚱어로 대화를 자주 나눕니다.

다섯째, 한국에서 가져온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함께 보면서 감성을 채우고 있습니다.

Beti: 동티모르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며 다양한 방면으로 느낀 점이 많습니다. 먼저 와이파이 속도가 느려서 불편했고 메일 하나 보내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줄 몰랐어요. 미끄롤레를 이용할 때는 이 작은 버스에 사람들이 무한대로 탈 수 있는 것 같아 신기하고 다들 그런 상황에서 크게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이 저와 달랐습니다. 워낙 더운 날씨라 쉽게 지치는데 저는 먹는 것에서 큰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집에서 주로 요리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갈 때쯤 할 줄 아는 레시피가 많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봉구스라는 도시락을 먹다가 머리털이 나오거나 컵에 때가 잔뜩 묻어 있기도 해서 식당의 위생은 한국보다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먹기 싫은 순간도 있지만 동티모르에 온 이상 환경을 쉽게 바꿀 수는 없으니 내가 적응해야 겠다고 느꼈습니다. 숙소안에 꽤 큰 책장이 있는데 독서를 좋아해서 읽을 책이 많다는 점이 너무 좋아요. 슬프게도 개 꼬삐가 내 옷을 한 벌 물어뜯었는데요. 처음에는 화가 났고 한국에서 옷을 더 많이 챙겨올 걸 후회했는데 지금은 그냥 없는 대로 살게 되었어요.

Lopez: 낯선 첫 남반구의 생활이지만 지난 한 달은 너무 건강하게 잘 지냈다. 긴장을 많이 했던 처음과는 달리 사람 좋은 동티모르는 금방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잘 적응해서 참 다행이다. 물갈이나 감기 없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 곳은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 한국에서 했던 편리한 생활을 마음대로 누릴 수는 없다. 하지만 사람 냄새 폴폴 풍기는 좋은 사람들이 사는 모두가 가족 같은 동티모르의 생활이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Anis : 물과 전기도 자주 끊기고, 인터넷도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느렸기에 처음엔 ‘과연 이곳에 적응할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내 자신에게 놀라움을 느낄 만큼 빠른 속도로 잘 적응해왔다. 이는 솔직히 내 노력보단 이곳에 함께 상주하는 마르첼리노, 리안드로를 비롯한 많은 티모르의 친구들이 도와준 덕이다. 일단 흡연하러 나갈 때마다 같이 피자며 내게 우루루 물려와 말을 걸어주었기에 외롭고 우울한 순간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준 덕에 생활환경도 점차 개선되었기에 사는 것이 점점 편리 해졌다.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 늘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호의와 도움을 베풀어 주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한국에서와는 달리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졌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분명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 정과 따뜻함이 있어 지금도 하루하루가 즐겁다.

Fina : 9월 한 달은 티모르 적응시간이었다. 피쓰커피 가공장 옆에 마련되어 있는 집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쓰커피 간사님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많다. 그래서 빨래를 하다가 물이 끊길 때나 전기가 나갔을 때 등등 간사님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많다. 아! 물과 전기가 끊기는 것은 그냥 일상이다.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다. 샤워를 해야되는데 물이 끊겨서 전에 미리 받아놓은 물을 아껴가며 팀원들과 돌아가면서 샤워를 하곤 했다. ‘어떻게 이 물 양으로 샤워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조금 남아있는 물의 양으로 4명이 돌아가면서 샤워가 가능했다. 새삼 ‘내가 한국에서 많은 양의 물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대로 막 썼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지하게 이전의 나를 돌아보며 반성하기도 했다.

하루 일과 중 제일 고된 일은 단연 손빨래이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매일매일 손빨래를 하는데, 빨래를 하다가 땀이나 다시 옷을 빨아야 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더위 속에서 매일 손빨래를 하는 것은 꽤 힘들다. 그래도 빨래를 하고 널어놓으면 강렬한 햇빛 덕에 금방금방 말라 그 점은 좋다...!

손빨래, 물 사용, 전기 사용, 음식 해먹기 등등 처음엔 모든 것이 다 낯설고 서툴렀지만 한 달 이라는 적응기간을 걸치면서 꽤 익숙해졌고, 그 낯설었던 것들이 이제는 재밌기도 하다.

YMCA 센터활동



저희는 YMCA센터에서 저희 또래의 메리와 루이스에게 2주 동안 떼뚝어를 배웠습니다.
라온아띠를 위해 자원해서 귀한 시간을 내준 두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 표현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루이스, 메리 Obrigadu Barak!



YMCA 유스들과 함께한 크리스토 레이 나들이!

딜리에서 생활한 이후로 처음 한 물놀이에 다들 신나고 재밌어 했습니다.
센터 방문하는 여러 아이들과 우리 또래의 여러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유스들과 줄다리기 축구 등 재밌는 게임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신나게 물놀이를 했던 에메랄드 빛 바다는 따뜻하면서도 너무 짭답니다.



저희 팀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YMCA센터의 아이들과 함께 하는 순간입니다.

센터를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이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주고, 저희랑 잘 놀아준답니다.

같이 축구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YMCA의 자랑이자 동티모르 축구 국가대표팀의 미래이자 우리의 도벤인 아따이!

처음 국가대표라는 이야기를 듣고 만났을 때는 신기하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YMCA에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면서 이제는 너무나 친숙한 동네친구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이나 지금이나 아따이는 늘 잘생기고 멋있습니다.
아따이와 축구를 하며 '아! 이게 국가대표구나!'하고 매번 생각합니다.



YMCA센터의 재단장과 환경개선, 그리고 팀협동심을 기르기 위해서 주어진 미션, 벽화작업!
저희 팀원 모두 벽화 작업은 처음이라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루이스, 메리, 아따이, 그리고 모든 팀원들의 노력으로 동티모르의 탄생설화의 주인공인 악어 라파엑을 비롯한 다양한 그림들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림을 보며 좋아하는 센터 아이들 덕분에 뿌듯했습니다.

Beti: 딜리ymca 센터에 대한 첫 느낌은 생각보다 낡고 열악한 시설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붙어 있는 교실에서 메리와 루이스에게 떼뚱어 수업도 듣고,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와 함께 내부에 벽화도 그리고 센터 주변 아이들과 노는 등 짧은 시간동안 자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센터가 친숙한 곳이 되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는 방식보다 티모르 친구들에게 직접 떼뚱어를 배운 것이 그들과 좀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처음에는 언어가 서툴어서 서로 답답했지만 점차 할 수 있는 말이 늘어나자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떼뚱어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이자 또 다른 학습방법이 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죠벤과 크리스토 레이 바닷가에 갔을 때는 특히 또래의 여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더 반가웠습니다. 코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나눈 다양한 이야기와 아이들과 함께한 물놀이 덕분에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Lopez: 오늘 한 아이의 이름을 백 번은 말하고 들었다. 이쯤이면 외울 만도 한 아이의 이름인데, 도무지 외워지지 않는다. 나를 많이 좋아해주는 아이라서 나도 더 좋아하게 되었다. 라바릭 '미뇨르따' 이제는 기억해. 짧은 시간 많은 아이들을 만나서 얼굴만 아는 아이도 있고, 이름만 아는 아이도 있고, 나는 알지만 아이는 모르는 경우도 있는 센터. 딜리 집에서 1번 미끄롤레를 타고 15분 정도 달리면 도착하는 YMCA센터다. 센터에서는 세비 안토니오, 마나 우디스, 떼뚱어 선생님이자 또래 친구인 마웅 루이스, 마나 메리를 만날 수 있다. 그들을 비롯한 센터 주변 어른, 청년,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들까지. 모두를 만나서 축복이고 행복하다. 이번 달은 떼뚱어 수업과 벽화작업을 하며 주로 센터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사메를 다녀온 뒤에는 꼭 딜리 센터에서 다른 활동들을 이어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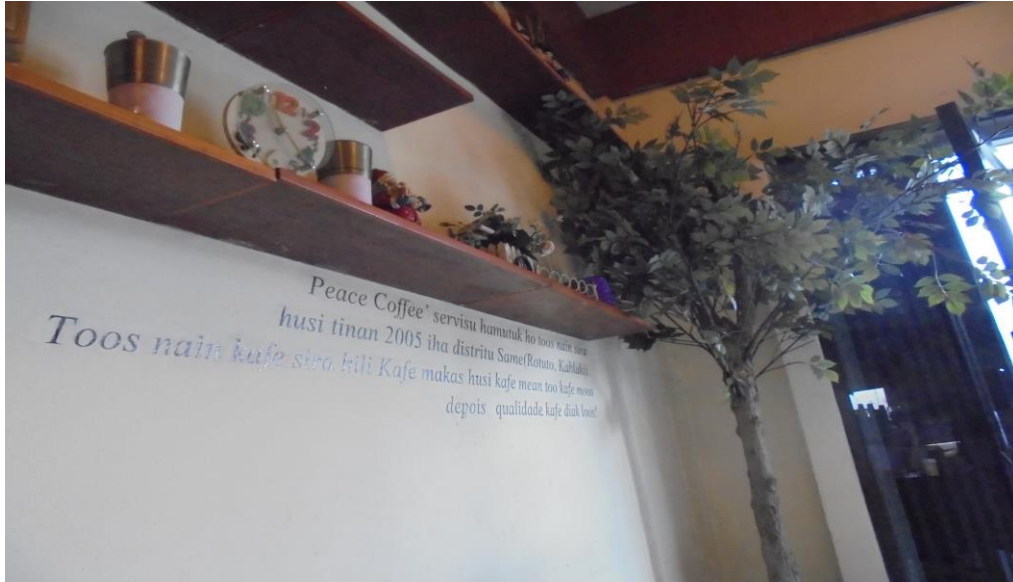
Anis : 딜리 YMCA에선 초반엔 떼뚱어 강의를 들었고, 후반엔 벽화작업을 했었다. 떼뚱어 강의를 들었을 땐, 답답한 부분이 많았다. 한국어가 아닌 영어를 통해 떼뚱어를 배웠기에 의미의 정확한 이해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강의를 하는 메리나 루이스도 그리고 강의를 듣는 나도 영어 실력이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힘들었다. 이런 이유로 조금 비효율적으로 떼뚱어를 배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하지만 체계적이지 못하고, 느리게 배웠지만 강의를 하는 메리와 루이스와 강의를 듣는 나를 비롯한 라온아띠 팀원들이 함께 고민하며 천천히 나아가는 과정에서 진심을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는 느낌도 든다. 그리고 그 덕에 많은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티모르 사람들의 말의 의도와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중간에 동티모르의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아파이를 만나고, 함께 축구를 한 것이 많이 기억에 남는다. 그와 축구를 했을 때,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아 망신살을 뺏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국의 국가대표와 함께 공을 찼다는 그 자체로 내겐 영광이자 행운이었다. 벽화작업은 난생 처음인지라 많이 기대했지만, 당시 컨디션이 좋지 않아 반 정도 빠졌어야만 했다. 그 탓에 지금도 아쉬움이 많다. 그때만 생각하면 좀 더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Fina : YMCA센터에 가는 날은 늘 즐겁다!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센터의 아이들을 볼 수 있기 때문!!!! 센터를 놀이터로 삼으며 같이 놀기도 하고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정말 그 아이들은 사랑스럽다♥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는지라 처음 그 애들을 보자마자 너무 귀여워서 먼저 말을 걸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부끄러워하며 나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먼저 '피나~~~'하면서 내가 센터에 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주고, 같이 놀자고 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귀엽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내가 애들한테 알려주는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내가 배우고 얻는 것이 많은 것 같다. 티모르 동요, 울동부터 시작해서 밝은 에너지와 그들이 지닌 태도까지 오히려 내가 아이들로부터 얻고 배우는 것이 많다! 그러한 아이들을 위해, 센터 환경 개선을 위해, 또 팀 협동심을 위해 우리는 수업교실에 벽화를 그렸다. 함께 작업한 팀원들과 루이스, 아파이에게 고맙지만 무엇보다 완성된 벽화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줘서 뿌듯했다.

또 센터에서 메리와 루이스에게 떼뚱어를 배웠는데, 라온아띠를 위해 자원해서 떼뚱어를 알려준 그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떼뚱어 수업은 언어를 배울 수 있었던 시간임과 동시에 또래 청년인 메리, 루이스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

피스커피 활동



저희가 지내고 있는 숙소 옆에는 피스 커피 가공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피스커피가 친근하게 느껴졌고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스커피 카페에서 피스커피 사업의 Value Chain과 공정무역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저희는 피스커피를 좀 더 깊게 이해하고 티모르 사람과 티모르의 문화를 접하고자 피스커피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친절한 매니저 마웅 다빛과 마나 마야, 그리고 마웅 안드레와 함께 서빙, 설거지, 간단한 음료 제조를 했습니다.

카페 직원들과 카페를 방문하는 손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숙소 옆 커피 가공장에 있는 원두 포대 재정리를 돕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적응을 위해 그동안 간사님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조금이나마 그 도움에 보답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운 가공장과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웃으며 일하는 간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Beti: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은 제게는 정말 멀고 낯설었습니다. 동티모르에서 만나게 된 피스커피만큼 공정무역이 가깝게 느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의하는 공정무역이란 생산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 받으며 한 이해 관계자를 쥐어짜는 착취가 아니라 정당하고 공정한 생산 과정을 포함한 경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스커피에서 누가 이 커피를 생산했는지부터 어떻게 가공되어 수출되고 티모르 내에서는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 구성원을 해당 사업의 주체이자 의사결정자로 인정한 부분에서 진정한 국제 개발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짐작해보았습니다. 특히 티모르에서 커피가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싼 외국계 카페 물가 등 때문에 티모르인에게 카페문화는 그렇게 가깝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티모르인을 위한 카페인 피스커피가 사업의 내수시장이라는 의미보다 더 크게 와 닿았고 그 취지가 감동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직접 일손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일했지만 한국의 빨리빨리와 다른 티모르의 속도를 느낄 수 있었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재밌었습니다.

Lopez: 동티모르 활동과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피스커피다. 피스커피 가공장 옆에 살면서 가끔 핸드드립을 한 커피를 마시면서 피스커피 카페에서 일손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진 dame caffe.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 동티모르 커피 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앞으로 사메에 가서 배울 것들, 딜리에서는 피스커피에 대해 아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카페는 정말 사람 냄새 제대로 나는 공간이었다. 피스커피 카페에서 만난 직원들 마웅 다빗, 마나 마야, 마웅 안드레. 라온아띠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고맙다. 잠깐 일을 하면서 카페 문화를 즐기는 다양한 손님들을 만날 수도 있었는데, 역시나 사메 다녀온 이후에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했다.

Anis : 단, 하나 장담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라온아띠로서 동티모르에 온다면 피스카페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공장에 계신 매니저 마웅 조디를 비롯한 직원분들, 그리고 피스 카페 딜리점의 매니저인 다비드를 비롯한 직원분들까지. 모두가 늘 웃으면서 호의를 베풀어 주었기에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장과 카페의 일손을 도울 때마다 늘 빛을 갠다는 기분으로 열심히 했었다. 우리를 위해 노력해준 그 분들이 조금이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더 부지런하게 움직였었다. 그 과정에서 공정무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고민할 수 있었고, 카페를 방문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분들과 사소한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각자의 국가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다양한 지식을 얻고,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내겐 참 행운이었던 생각이 든다.

Fina : 피쓰커피 가공장 옆 숙소에 사는 만큼 피쓰커피는 우리에게 친숙했다. 또 피쓰커피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피쓰커피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야했다. 강호간사님의 피쓰커피value chain 설명은 내게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피쓰커피 사업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또 설명을 듣고 나니 커피 한 알 한 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집에서 자주 피쓰커피를 핸드드립해서 마시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는 이 커피가 이렇게 나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문득 생각하기도 한다.

피쓰커피 관련 활동해서 가장 인상깊었던 활동은 카페 일손 돕기이다! 카페 일손을 도우면서 피쓰커피 내수시장인 카페에서는 어떤 메뉴를 팔고, 어떤 손님들이 주로 오는지 가까이에서 관찰 할 수 있어 좋았다. 무엇보다 카페직원인 마웅다빗과 마나마야, 마웅안드레에게 일을 배우면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에, 또 카페손님들과 자주 대화하며 티모르라는 나라에 대해 좀 더 이해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에 카페 일 손 돕기 활동이 너무 재밌었다. 덤으로 떼똌어 실력 향상까지 ><! diak!!

동티모르 역사 알아보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크리스토 레이의 예수상에는 동티모르의 아픈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점령했던 당시 가톨릭 국가인 동티모르를 회유하기 위해 설치했고, 그때문에 예수상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를 27번째 주로 편입했다는 뜻으로 27M의 높이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픔을 지니고 있지만 최근에는 많은 동티모르인들이 가족이나 친구와 나들이 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계단을 오르면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담긴 조각들을 보며 동티모르의 역사 또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새롭게 탄생한 부분이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따시또루에 있는 존 파울로 동상은 존 파울로 교황님의 동티모르 방문을 기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동상 옆에 있는 예배당을 보며 신실한 동티모르인들의 신앙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상의 주위를 바다 두 면과 인공 호수 하나가 둘러 싸고 있는데, 이때문에 이 동네 이름이 따시 또루(3개의 바다)입니다.

이러한 이름의 유래가 재밌었고 동상 옆에서 바라본 푸른 빛깔의 바다가 아름다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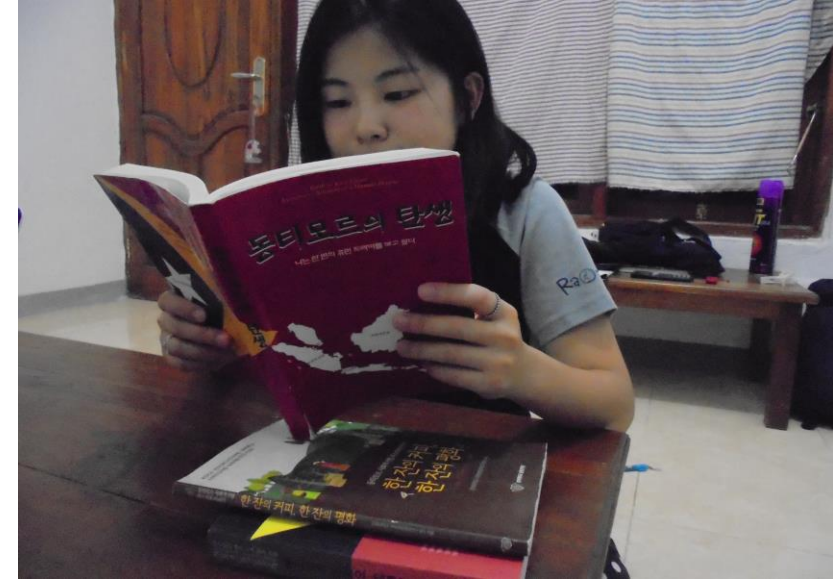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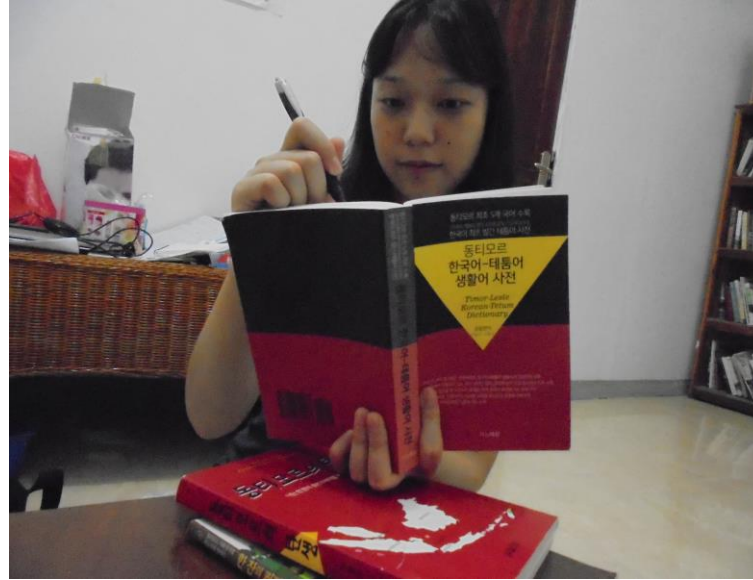
RESISTÊNCIA
TIMORENSE
ARQUIVO & MUSEU

REZISTÊNCIA
TIMORENSE
ARKIVU & MUZEU



산타크루즈 묘지와 독립기념관 방문은 동티모르 역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의 무차별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산타크루즈 묘지는 맞은 편에 인도네시아 군의 묘지가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산타크루즈 묘지 학살 등 아픈 역사를 기록한 독립기념관에서 동티모르가 독립하기까지 과정을 담은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동티모르의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유적지의 방문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동티모르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각자 갖기도 하였습니다!

동티모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Beti: 이 작은 크기의 섬인 티모르는 오랫동안 포르투갈과 인도네시아에게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본이 강제 점령하던 시기의 한국을 생각나게 했기에 더욱 이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특히 발리보라는 영화를 보며 왜 인도네시아군이 저널리스트를 비롯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는지, 왜 국제 사회는 작은 섬나라 동티모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invasion를 묵인하고 협조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1979년 12월의 동티모르는 1910년 한국, 1970년 베트남, 1980년 광주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희생에도 불하지 않고 독립기념관에서 본 refuse to die라는 시처럼 티모르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동티모르가 독립할 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세력들이 현재 기독교 정당으로 활동하는 것 등을 보면서 한국과 같으면서도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을 때 한국에서 보았다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 여러 장면이 사실 다 짜여진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Lopez: 한일월드컵이 개최됐던 한반도의 2002년에 반대편 남반구 티모르섬에는 21세기 첫 독립국가가 탄생했다. 일제시대, 6.25전쟁, 민주화운동 등 책으로 영상으로 배웠던 우리의 시련과 역경, 고난을 알지만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아니 잘 알지 못하는 게 맞다. 하지만 여기 동티모르의 내 또래 친구들은 인도네시아에 의한 식민통치 중 학살과 만행, 유엔 과도정부의 통치 등 한 나라의 독립 과정을 모두 겪었다. 그들은 내 할아버지, 아버지의 자화상이다. 이들의 열정은 젊은 동티모르가 써서 나갈 앞으로의 역사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세계 시민으로서 정말 멋지고 좋은 동티모르 친구들을 응원한다. 포르사!

Anis : 티모르의 역사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 지나치게 무지했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역사에 관심이 많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다. 역사 관련 서적과 영화, 게임 등을 자주 접하고, 인터넷을 통해 자주 역사와 관련된 검색을 했기에 또래 중에선 제법 역사를 잘 아는 편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티모르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며 이것이 모두 허상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강대국들의 화려했던 역사만 공부했지, 상대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밀리는 국가의 역사엔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에 동티모르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인도네시아의 잔혹한 식민지배를 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정세에서 소외 되는 국가의 역사와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자 노력했다면 동티모르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아픔의 역사를 덜 겪진 않았을까? 큰 관심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해나 가는 국가들보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소외 되고, 고통 받을 수 밖에 없는 국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동티모르를 비롯한 국제적인 관심을 덜 받는 국가의 역사와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티모르의 역사를 배우면 배울 수록 우리 나라 역사와의 공통점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다. 외세의 침략과 잔혹했던 식민 시대부터 같은 민족 간의 참혹한 비극까지 많은 부분이 흡사했다. 그때문인지 몰라도 독립한지 15년이 된 지금의 티모르를 보면서 마찬가지로 독립한지 15년이 된 1960년의 우리나라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1960년대의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겪어 보진 못했다. 하지만 책과 미디어, 그리고 어른들의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고 상상했던 우리나라가 지금의 티모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북적북적한 대가족과 정이 넘치는 문화,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한 환경까지. 이밖에도 많은 점이 1960년대의 우리나라와 비슷해서 이곳의 청년들과 어르신들을 만날 때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예전에 이런 느낌으로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든다. 그리고 동네를 뛰어 다니는 아이들과 아기들을 보면 60년대에 태어난 우리 어머니도 저 아이들처럼 유년시절을 보냈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한다. 아픈 역사를 이겨내고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 볼 수록 마치 과거 우리의 거울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래서 그런지 티모르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다.

Fina: 우리는 티모르에 도착하고 바로 다음날 크리스토레이를 방문했다. 급작스럽게 싸이트가 바뀐 탓도 있고 내가 게으른 탓에 티모르 역사에 관해 아는 것 없이 나는 티모르에 도착하였다. 그런 역사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채 처음 크리스토레이를 보았을 때는 '우와 바다를 낀 산책로가 너무 예쁘다~ 예수상이 엄청크네?'라는 생각 뿐이었다. 후에 간사님에게 크리스토레이 예수상 설치의 비화를 들었는데, 인도네시아 식민지배를 겪은 티모르의 아픈 역사를 알게 되었다. 얘기를 듣고 보니 크리스토레이의 예수상이 마냥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또 티모르라는 나라의 역사를 더 깊게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타크루즈 대학살이 일어났던 산타크루즈 묘지와 독립기념관을 방문했다. 여러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면서 '티모르'라는 나라가 내가 태어나고 살아왔던 '한국'과 닮은 점이 참 많은 것 같다고 느꼈다. 인도네시아군이 티모르 일반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무력으로 티모르를 점령하였던 시대가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불어 우리가 국내훈련을 받았던 광주라는 도시와도 닮은 것 같아 티모르라는 나라에 더 애정이 가고 정감이 간다.

9월 이야기 개인 소감

Lopez: 먼 나라 이웃나라 동티모르에 잘 왔다. 지난 한 달간 한국에 대한 호의, 이방인에 대한 호기심, 나라는 사람에 대한 흥미를 느끼며 살았다. 작은 나라 동티모르에서는 한국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를테면 국가기관 공무원, 국제 단체, NGO, UN 관계자들은 가까운 마트에 가서 조금만 둘러보면 보인다. 오래 전에 약속을 잡지 않고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인 것이다. 평소 관심이 있던 국제 활동에 대한 선배들을 만나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대화의 장을 열고 싶기도 했지만 이제는 주위에 웃으며 맞이해주는 동티모르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즐거워 뒤로 미루고 있다. 느린 시간 속에서 함께 웃으며 서툰 말과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를 사로잡았다. 이 마을의 일원으로 녹아 들어 잘 살고 싶다. 아직도 나는 나를 잘 모르고, 그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자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내 앞에도 과속방지턱이 있고, 비탈길이 있다는 걸 조금은 느낀다. 그리고 다시 나를 잡는다.

앞으로의 생활이 기다려지는 알면 알수록 더 알고가고 싶은 동티모르다. 팀원 모두 한 달 간 크게 아프지 않고 다들 적응을 잘해서 다행이고 고맙다. 지금처럼 건강하게 잘 살고 한국에 돌아가기를 바란다.

Beti: 하루하루 지나가니 어느새 한 달을 티모르에서 보냈습니다. 9월 한 달은 티모르의 속도에 맞추어 여유롭고 느릿한 한 달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이트가 변경되면서 늘 설레던 장소인 공항이 이번만큼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많은 정보를 구할 수 없는 등 낯설고 새롭다는 감정이 너무나 컸었고 잘 모른다는 게 걱정되었습니다. 티모르는 확 풍기는 더운 열기부터 사람들의 생김새까지 정말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본 티모르는 그저 세계 어디와도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당일부터 겪게 된 정전과 단수에 처음에는 짜증났지만 한편으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페에서 일손을 도울 때 잠시 정전이 된 적이 있었는데 손님들은 그저 앉아서 대화와 담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모습은 작은 충격이었고 또 물이 잠시 나오지 않는 게 아무렇지 않은 나를 보며 티모르에 적응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말하는 동티모르는 GDP 기준 최빈국에 속하는데 내가 본 티모르는 결코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내가 만난 티모르 사람들은 구걸하지 않았고 미국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숙자도 없었습니다. 이를 보며 가난에 대한 통상적인 경제적 기준이 과연 정말 가난을 다 설명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우리 넷이 속한 팀으로 활동하면서 '나'라는 단어보다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울타리에 넣어서 표현했다는 점이 나로서는 큰 변화였고 어쩌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내 의견을 대표로 말할까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벽화그리기 등 팀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느끼는 답답함도 사실 '내가 옳다'는 내 생각에서 왔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디까지가 다른 건지, 다름에 대한 정의와 한계도 분명하게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두 다른 세 사람과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면서 한 사람의 고유한 특징을 내가 불편하게 느낀다면 어떻게 그 감정을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생겼습니다. 또한 내가 말한 것과 다른 사람이 들은 내용이 역시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주 느낄 수 있었고, 내 의도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방식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어느 하나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아 여전히 고민이 됩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 이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Anis :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았었다. 하지만 그 호의의 대부분은 가족을 제외하면 내 노력의 결과이거나 혹은 그들이 내게 무언가 바라는데 있어서 였다. 그렇게 살아 왔기 때문에 동티모르 현지 간사님들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처음 부터 베풀었던 무한한 호의는 낯설면서도 말로 설명 못할 만큼 감사했다. 사실 이러한 간사님들의 호의는 이 분들의 성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곳에 먼저 와서 활동했던 분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 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기에 그 분들과 같은 나라, 같은 공동체에서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먼저 오셨던 분들께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빛을 진 마음이 든다. 그리고 그 빛을 갚기 위해선 내가 떠난 이후에 이곳에 다시 올 사람들을 위해 나 또한 이곳에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렇다고 무리할 생각은 없다. 나는 무리한다 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만큼 잘난 사람이 아니니까. 그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조심해야 할 땐 조심하고, 무언가를 해야 할 땐 무리하지 말고 적당한 속도로 나아가고 싶다. 그것이 나의 최선이고, 나를 사랑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일 테니까.

또 한편으론 현지 간사님들을 비롯한 티모르의 사람들에게 내가 그저 나란 이유만으로 호의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싶단 생각이 든다. 한국 사람, YMCA, 라온 아띠 등등의 수식어가 아닌 그저 정현채 혹은 아니스로서 사랑 받고 싶다. 내가 설사 한국 사람이 아니었더라도, YMCA와 관련 되지 않았더라도, 라온 아띠가 아니었더라도 이분들께 지금처럼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러한 바람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내 자신을 오히려 괴롭게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그러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면 이곳에서 '이 사람은 내 영원한 친구다'하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친구를 단 한 명이라도 사귄 수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친구를 단 한명이라도 사귄 수 있다면 지금의 매일이 훗날 라온 아띠 활동이 끝났을 때, '아 그때 참 좋았구나.'하고 웃을 수 있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Fina: 티모르에 도착하고는 ‘드디어 내가 티모르에 도착했구나’ 라는 들뜬 마음과, ‘내가 이제 무얼 하면 되지? 무슨 활동을 할까?’ 라는 호기심과 궁금함이 참 많았다. 사실 하루빨리 떼뚱어를 배우고 싶고, 일정을 알고 싶고, 계획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컸었다. 그런데 강호간사님이 ‘동티모르 속도에 맞춰 살아보도록 하자. 적응하는 기간이니 티모르의 흐름에 너희 자신을 맞춰 보라’라고 말씀하신 걸 듣고는 아차!싶었다. 한국에서의 나는 모든 일정을 계획 해야 되고, 그 일정에 딱딱 맞춰 움직여야만 하고, 일정이 어긋나면 불안하고 때로는 화 나기도 했었다. ‘빨리빨리’가 습관화됐었고, 나는 이를 동티모르에서도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처음 ‘라온아띠’를 지원했을 때 나는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경험을 하고자 했다. 내가 속한 나라에, 지역 속에 ‘나’라는 사람을 흡수시켜 함께 어울리고 싶다는 생각이 컸었는데, 그 초심과 달라진 나를 보니 어쩐지 회의감이 들었다.

그래서 처음 2주는 내가 무얼 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지사람들을 관찰하고, 티모르 라는 나라·딜리라는 지역의 문화와 흐름에 나를 맞춰보자 라고 나 자신과 약속했다. 티모르 라는 나라의 속도에, 흐름에 어느정도 맞춰진 뒤부터는 내가 먼저 현지사람들에게 배우려고 다가가고, 함께 소속되고자 노력하려 했다. 같이 사는 간사님, 센터 간사님, 센터 아이들, 가끔 마주치는 이웃들까지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다가가려고, 또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친해지려고 나름 노력했던 것 같다. 즉, 내게 9월 한달은 새롭고 낯선 티모르에 적응하는 기간, 배우는 기간이었다.

끝으로 한 달 동안 팀원들 모두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 잘 마무리해서 다행이기도하고 정말 고맙다. 다음 달은 이제 싸메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싸메에서의 생활이 여러모로 기대가 된다.

아! 10월 나 자신과의 다짐은 ‘현지음식 가리지 않고 도전해보기’이다!

갤러리



발리행 비행기에서 바라본 저녁 노을



미끄롤레 뒷 창문을 바라보다



제목: 명암
인스타 감성...



이쁜이들 3명~~~ 딜리를 흔들어 놓으셨다



Fina의 9월 인생샷
크리스토 레이를 흔들어 놓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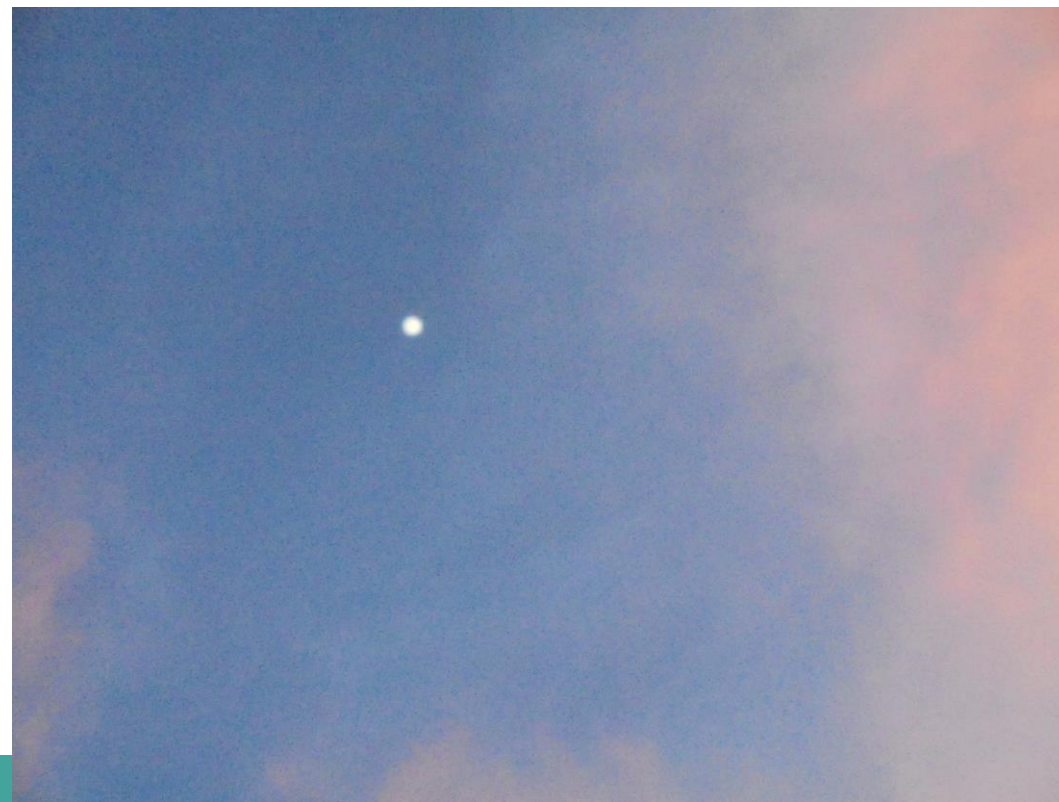
한국어를 우리 떼뎀어보다
잘 하시는 마웅 에두 ♥



진격의 아니스



크리스토틀레이 마을 이장 (로페즈, 24)



제목: 월광
인스타 감성2

갤러리

RaonAtti



ㅎㅎ



뽕따 뽕따~~



후마 시가루..



카페 일이 제일 쉬웠어요

Ate fulan oin ~
다음달에 봐요~

